

“인신매매 방지” 국제연대 나서

91. 12. 12

아시아 여성인권 협의회 창립

인신매매, 성폭력에 의한 여성 인권침해 현실 진단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창립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성가수녀원에서 개막돼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여성인권협의회 창립총회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13개국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성운동가 45명이 참석해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발표하고,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에선 이애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국장 등 15명이 참가했다.

90년 1월 세계교회협의회(WCC) 산하 아시아여성인권위원회가 아시아지역의 심각한 여성 인신매매와 성폭력 문제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연대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해 그해 9월부터 아시아 여성인권협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져왔다. 그동안 방콕, 필리핀 등지에서 세차례에 걸쳐 준비모임을 가져온 이 기구 준비위원회

는 지난해 9월 필리핀 모임에서 스나라별 여성인신매매 실태조사 △유엔 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에 여성인신매매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인신매매,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피난처, 쉼터 설립을 각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게끔 촉구한다 등의 5개항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91년 12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기로 하고, 총회주제는 ‘인신매매’로 결정했다.

창립총회 준비위원장인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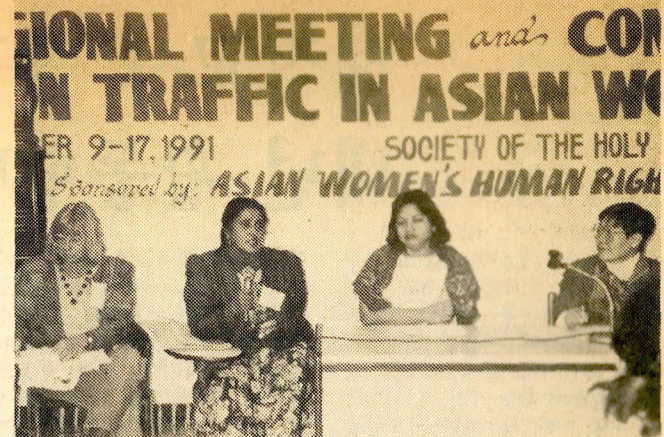
노동력과 성적 대상으로 착취되고 있어 인신매매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네팔에서 인도로 여성들이 팔리고 있으며, 정부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산초 준비위원장은 비판했다. 또 네팔의 여성들은 하루평균 8시간 일하는 남자들보다 2~4시간이나 더 많은 10~12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인신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여성이 일본 유흥가에

일본유흥가 접대부 70% 인접국 출신 정부 오히려 ‘외화벌이’ 조장 측면도

의 여성운동가 넬리아 산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인신매매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인권 침해행위이자 현대판 노예제”라면서 “여성은 자국내에서만뿐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팔려가 값싼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창립총회에 참가한 아시아 여성운동가들이 인신매매 등에 의한 여성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팔려가고 있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불법취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신혜수(계명대 여성학 강사)씨는 지적했다.

11일 일본에 진출한 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유흥업소 여성 실태를 발표한 일본의 여성운동가 에츠코 야마다(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협력과 평화분과 간사)는 “일본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70%가 한국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이라고 밝히고 “자의든 타의든 돈을 벌기 위해 ‘성’을 파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일본을 비롯한 필리핀, 홍콩대표가 여성인신매매실태를 보고한 데 이어 12일엔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타이 스리랑카 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의 여성 인신매매 실태가 발표된다. 11, 12일 이들 동안의 나라별 실태보고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13일 종합토론을 갖고 ‘아시아 여성인권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신연숙 기자〉